

코로나도 막지못한 ‘달빛동맹’ 영·호남 화합

광주-대구 자원봉사 교류의 장 열려

공연·달빛스토리 영상 상영 등
온라인으로 달빛동맹 행사 개최

광주시는 3일 광주도시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광주-대구 자원봉사 달빛동맹 교류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대구 자원봉사 달빛동맹은 영·호남 화합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매년 대구와 광주를 오가며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근대문화역사, 달성 토성마을 탐방, 대구안전체험관 방문 등, 광주에서는 5·18역사 바로 알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 월봉서원 방문 등의 내용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직접 방문 대신 온라인을 활용한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에서 준비한 공연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달빛스토리 영상 상영, 나눔 물품 제작·배포 등 순으로 열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자원봉사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달빛동맹의 정도 확인했다.



3일 광주도시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광주-대구 자원봉사 달빛동맹 교류의 장’ 행사에서 광주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응원문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대구에 광주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담아 ‘힘내라 대구 희망트럭’을 보냈으며, 8월에는 대구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광주를 위해 수재의연 물품을 전달했다.

김지환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대구 자원봉사 교류를 통해 양 지역간 화합과 협력은 물론 자원

봉사자,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광주와 대구의 화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구 달빛동맹 행사는 ‘연대를 화합을! 교류로 소통을! 자원봉사로 우애로!’라는 슬로건 아래 2013년 시작된 이후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동신대 간호학과 ‘한국형 기본소생술 교육 과정’ 운영



동신대학교 간호학과는 최근 3학년 72명을 대상으로 ‘2020년 보건의료인을 위한 한국형 기본소생술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외부 전문 강사 10여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등 인명구조 대처 능력을 배웠다. <동신대 제공>

호남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증 발급 서비스 지원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지난 31일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올 2학기예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38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등록 서비스를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전남대 지역개발연 ‘지역개발연구’ KCI 등재학술지 선정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소장 나주몽·사진)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지역개발연구’ (연2회, 6월·12월)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Korea Citation Index) 등재 학술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역개발연구’는 2018년도 학술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된 이후 2020년도 계속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

‘지역개발연구’는 지난 1969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 52권 1호(통권 91집)까지 발간했으며, 향후 연3회 이상 증간을 계획하고 있다. 이 학술지는 지역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주제 발굴과 ‘지역개발학의 글로벌화’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문적인 연구 논문들을 게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복회 김원웅 회장, 시교육청에 임정 태극기 사본 전달



제91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3일 광복회 김원웅(왼쪽에서 다섯번째) 회장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정원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95-1호) 사본을 전달했다.<사진>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광복회와 ‘독립운동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협약식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정원태극기 사본을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하며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 광주시교육청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민족정기의 뿌리를 찾아 계승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주는 것”이라며 “광복회가 지닌 철학과 전문성은 광주학생들이 위대한 독립정신을 이어받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KBS 뉴스특보 -2020 미국의 선택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MBC 뉴스특보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35 불새 2020
[9]		45 누가 뭐래도(재)		10 SBS 뉴스특보 2020 미국의 선택 1~2부
[10]	00 KBS 뉴스특보 -2020 미국의 선택	2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재)	00 기본 좋은 날	
[11]		00 도도술술라라술(재)	00 MBC 뉴스특보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12]	00 특집 KBS 뉴스 12		20 치치핑핑 50 2020 미 대선 특집 2시 뉴스 외전	00 SBS 뉴스특보 2020 미국의 선택 3부
[1]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투페이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	00 KBS 뉴스특보 -2020 미국의 선택			00 특집 뉴스브리핑
[3]		00 전교통10 핫클립(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특집 사사건건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신비아파트:고스트볼 X의 탄생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트롯신이 떴다 2 라스트 찬스 스페셜(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2020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LG:두산>	30 남도에 가요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다Q	50 비밀의 남자		30 특집 SBS 8 뉴스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누가 뭐래도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도도술술라라술		00 트롯신이 떴다 2 라스트 찬스
[10]	00 생방송 특별대담 미국의 선택, 한반도 영향은? 55 더 라이브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00 MBC 뉴스데스크 50 라디오스타 1~2부	35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1]	3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튜디오 K		
[12]	1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통합뉴스룸 ET(재)	2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10 나이트라인 40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왕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8:00 당동맹 유치원 08:30 고고다이는 우리동네공룡 08:45 위인극장 리턴즈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2:25 지식채널e 12:30 클래스 e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EBS 초대석 14:45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5:45 몬카트 16:15 로빈 후드 16:30 당동맹 유치원(재) 16:50 해요와 해요 17:00 EBS 뉴스 17:20 마사와 곰 17:30 출동! 슈퍼왕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19:30 자이언트 팽TV 19: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유럽 랜드마크 기행 -마법의 땅, 스코틀랜드> 21:30 한국기행 <시골 노부부로 삽니다 3부 참 너무나 당신>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4일(음 9월 19일辛亥)	☎ 010-9790-8237
36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48년생 과감하게 청산 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히 요청된다. 60년생 가는 것에 비례해서 자신에게 돌아 올 것이나. 72년생 원칙을 따라라. 84년생 과도함은 속히 청산하라. 96년생 잘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18, 56	42년생 강도에 따라 판가를 나게 되어 있다. 54년생 상당한 거품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66년생 기가 막힌 인연을 가진 이와와 만남이 있을 것이다. 78년생 적극 적으로 나서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90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태를 냉철히 바라보라. 02년생 길지로 향하는 면모로다. 행운의 숫자 : 22, 53
37년생 묵적 달성은 하겠지만 실효성이 약해질 수도 있느니라. 49년생 느낌으로 판단하기는 실수 하리라. 61년생 예상 밖이어서 대단히 실망하는 판도이다. 73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 될 것이다. 85년생 주의 간개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97년생 좋은 말은 원래 듣기에 거북한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3, 71	31년생 본의 아니게 처리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보인다. 43년생 뿌리 깊은 업보가 현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이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55년생 명약관화할 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뒤늦게야 깨달을 것이다. 79년생 이루어진 바나 다름없다. 91년생 전후 사정과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7, 76
38년생 인식한 예감과 실제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라. 50년생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수순에 와 있다. 62년생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만 제대로 되어 가리라. 74년생 스스로 따라 오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86년생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함이 순리이다. 98년생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4, 90	32년생 진력한 만큼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 44년생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제의가 들어올 수다. 56년생 표출될 수밖에 없다. 68년생 안개가 자욱한 영국이다. 80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92년생 주관대로 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7, 75
39년생 지리멸렬한 소감상대 기간을 지나서 활성화 되리라. 51년생 위험 부담을 안을 이유는 없다. 63년생 노후 되었다면 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75년생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봉합 될 가능성이 높다. 87년생 유능한 인재를 만나거나 우수한 제품을 접하라. 99년생 명점을 보란 했을 때 새로운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4, 54	33년생 선정하지 못한다면 불리하다. 45년생 광택이 나고 풍채가 갖춰지니 길상이다. 57년생 안주하려 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해 보라. 69년생 탐스러운 육질의 과실이 줄렁줄렁 매달려 있다. 81년생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93년생 깊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없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31, 80
40년생 전혀 다른 것이니 따로 따로 대처해야 한다. 52년생 기대치와 동떨어져 있어서 결과에 허무할 수도 있다. 64년생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76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이 겹치리라. 88년생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대국이다. 00년생 개별 판단이 요구되는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35, 79	34년생 포장을 잘 한다면 가치를 높일 것이다. 46년생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될 것이다. 58년생 상대의 말을 다 들어 본 후에 판단해도 된다. 70년생 비밀은 끝까지 유지하여야만 후유증이 없다. 82년생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이가 있을 수다. 94년생 지난날과 비슷하리라고 예상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6, 73
41년생 별 의미가 없다. 53년생 얼마만큼 치밀한 상황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판이해진다. 65년생 얼굴에 함박꽃이 피고 너털웃음이 절로 나는 경사가 보인다. 77년생 저변의 숨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89년생 주의하라. 01년생 형편에 맞아야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51	35년생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헛물 뿐이다. 47년생 주관대로 임해도 된다. 59년생 시간의 안배를 잘 해야 실행에 차질이 없다. 71년생 순간적으로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면 오랫동안 헤어지지 못 하리라. 83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라. 95년생 체계를 그려치면 행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행운의 숫자 : 39, 92